

특별보고 2015-3호

제2차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2015. 12. 16



제2차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

일 시 : 2015. 12. 16(수) 14:00 ~ 15:30

장 소 : 한국벤처투자(KVIC) 지하1층 레드룸

중기청은 12월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에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이후 이행사항 점검과 개선 아이디어 공유를 위해 발족한 '협의회'에는 중기청장 주재로 산업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중견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2차 협의회는 부처 간 협업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2016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법령정비 방안 △올해의 히트챔피언 선정 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구두 발언을 다소 다듬었습니다.

1. 위원별 발언 요지

1) 중견기업계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정부·국회 통한 정책 소통 노력 강화할 것

정부가 중견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미한 게 사실임.

성장지원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새로운 현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최근 개최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감했음. 새해에는 필요하다면 매월 1회씩 만나 중견기업계의 애로를 전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중견기업 발전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아갈 것임.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 올해의 히든챔피언?! 차별화된 가치 제시해야

히든챔피언이 법률 용어인지 정책 용어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WC300과의 차별점도 딱히 손에 잡히지 않음.

WC300의 취지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기보스틸㈜ 최승옥 회장

■ 중견기업 지원 대폭 확대할 필요

막상 중견기업이 되고 보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함께 언어낼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많다보니 앞다퉀 중기중앙회에 가입하고 있음.

중견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중견련 회원사 증가, 중견기업계 영향력 및 경제적 기여도 제고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루멘스 정태홍 사장

■ 효율적 R&D 투자 위한 메가 프로젝트 필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게임의 룰, 그라운드, 카운터 파트 등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짐.

변화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R&D 투자가 중요함.

R&D 투자의 질과 규모 모두가 달라져야 하는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 성과는 미흡함. 기업들의 일반투자로는 무언가 의미있는 것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함.

중견기업에 어울릴만한 일종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계양정밀 정병기 회장

■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R&D 투자 확대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

7월 새누리당 특위에서 건의한 IP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기꺼운 마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

계양정밀은 3년간 약 5.74% 정도를 R&D에 투자해왔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10%까지 투자금액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투자할 만한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한.

한편, 외환-하나은행이 합병되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중견기업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러움.

2) 학계 및 유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재훈 원장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안전에 포함된 부처별 추진과제들이 충분히 실현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중견기업계에 공통 적용될 문제를 열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인데,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들만이라도 온전히 해결된다면 기업의 체감도가 훨씬 클 것

한국중견기업학회 이동기 회장(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WC300과 WC300 기업협의회가 있는데 또 다른 ‘한국형 히든챔피언’과 협의회를 만든다는게 다소 중복적이지 않을까 우려됨.

법정단체가 되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련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할 이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갈 것임.

한국중소기업학회 송혁준 회장(덕성여대 교수)

중견기업은 다른 아닌 중소기업의 발전 모델로 중견기업이 잘 되어야 이를 바라보는 중소기업 역시 동력을 찾을 수 있음. 이에 한국중견기업학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

순천향대 표정호 교수

기업인들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하며, 특히 중견기업 지원에 있어 ‘초기 3년’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예컨대 ‘매출액 대비 R&D 비중 3% 이상’은 5% 이상으로,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은 30% 이상으로 지표 기준을 높여야 할 것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중소기업’이 ‘WC300’, 나아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해야 함.

카톨릭대 김기찬 교수

그간에는 HOW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중견기업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WHY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WHY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정책 집행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임.

3) 관계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는 중견기업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임. 중소기업의 애로를 이해하고 관련 법 등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랍니다.

대기업은 규제 대상,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인데 반해 중견기업의 경우 애매한 책임만 많았던 것도 사실임.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인데,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진행토록 노력할 것임.

중견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글로벌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경쟁해 나아가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분 문제를 병무청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 특히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중견기업 인원배정 확대를 요청해야 함.

중견기업 지원이 3년이나, 5년이나의 문제는 결국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국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 화강품, 유아용품 등 5대 소비재 등 관련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규제 장치들은 산업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며, 예컨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의 경우 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차이가 전혀 없음.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중기청은 앞으로 중견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중견기업특별법 개정 문제는 중기청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이분법적 법령정비는 여타 부처의 협조가 크게 요구됨.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련 간 큰 틀의 협의가 필요